교황, UNIV 학생들에 게 "모든 환경에서 기 쁨을 가지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십시오"

베네딕도 16세는 UNIV 세미 나의 참석한 학생들을 접견하 면서 "그리스도께 친밀한 기 도를 드리십시오" 라고 부탁 하셨다. 교황 베네딕도 16세는 세계 여러국가에서 UNIV 세미나에 참여하러 로마에 온 학생들을 접견하였다. UNIV 은 오푸스데이 성직자치단이 개최하는 대학생들을 위한 세미나이다. 교황은 "여러분들은 성주간을 로마에서 지내시면서 믿음과 우정과 영성 성장의경험을 가지시러 오셨습니다"라고말씀하셨다.

올 UNIV 의 주제는 "글로벌 문화에서의 그리스도교" 였고 교황께서는 학생들이 성호세마리아의 가르침대로 대학 생활안에서 국제적인 가톨릭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연설하셨다. 그 정신은 성 호세마리아의 말씀대로 "넓은 시야와, 깊은 생각과 항상 현실적인 가톨릭 가르침을 찾는 것이라"고 하셨다.

UNIV 은 1968년에 성호세마리아의 정신으로 시작되어 바오로 6세 때부 터 교황님과의 만남을 가졌다. 현재는 200개국의 학생들이 로마에서 모여 강의, 토론, 연구를 가진다. 오푸스데이회는 프로그램안에서 영적 교육을 맏고 있다. 이 모임은 로마를 알고 교회사를 배우기 위한 기회이기도 하다.

pdf | document generated automatically from https://opusdei.org/ko-kr/article/ gyohwang-univ-hagsaengdeulegemodeun-hwangyeongeseo-gibbeumeulgajigo-yesunimyi-jeungini-doesibsio/ (2025-10-29)